

출 장 보 고 서

I. 출장개요

1. 출 장 자 : 원장 채 욱
2. 출장기간 : 2012. 4. 24 ~ 4. 28 (4박 5일)
3. 출 장 지 : 싱가포르
4. 출장목적 : PECC-SINCPEC 컨퍼런스 및 PECC 상임위원회 참석

II. 출장일정

일 자	행 선 지	활동사항	비 고
12-04-24 (화)	인천-싱가포르	이동, 도착 및 호텔체크인	
12-04-25 (수)	싱가포르	Trust Protective Committee Meeting, Welcome Dinner 참석	
12-04-26 (목)	싱가포르	컨퍼런스 참석	
12-04-27 (금)	싱가포르	컨퍼런스 및 상임위원회 참석	
12-04-28 (토)	인천공항 도착		

III. 활동 내용

1. PECC-SINCPEC 컨퍼런스 및 PECC 상임위원회 참석
 - 행사가 개최된 싱가포르 오차드 호텔에 원활한 행사 진행과 관리를 위해 PECC 임시 사무국이 설치되었음.
 - 4월 26일부터 27일 오전까지 진행된 PECC-SINCPEC 컨퍼런스에 참석함.

- 타 회원국의 사무국 직원들과 만나 각 사무국 업무들의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함. 행사 후, 각 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끊임없는 교류와 정보 교환으로 진행 중인 사업의 홍보를 서로 돕기로 함.
- 채욱 원장(KOPEC 회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 참석

※ PECC-SINCPEC 컨퍼런스와 PECC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이어지는 섹션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IV. 상세내역

1. PECC-SINCPEC Conference 세션별 주요내용

[제1세션]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for APEC Economies

□ 빈센트 콩 (Vincent Kong) 브루나이 다루살렘 외교통상부 경제협력부장의 사회 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약,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촉진 관련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고 도미니크 심의관 (Dominic Goh, 싱가포르 외교부 국제경제부)

- 아시아 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협력협약 및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의 아키텍처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향후 지향점에 대해 논의함.
- 다양한 지역 역합들을 형성하는 전략적 이유로서 아래 4가지를 듦.
 - ✓ 모든 지역 플레이어를 포함
 - ✓ 모든 플레이어에게 지역의 stake 제공
 - ✓ 평화 및 안정 프로모션
 - ✓ 모든 국가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컨디션 조성
- ASEAN의 역할과 향후 AEC(ASEAN Economic Community)를 형성하는 동기에 대해 ASEAN의 경쟁력 강화를 가장 주요한 것으로 꼽음.
- ASEAN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고려됨.
 - ✓ EAFTA(East Asia Free Trade Area)는 2001년 제안되었고, ASEAN+3로 시작되었음.
 - ✓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는 ASEAN+6를 포함하는 협약으로 2006년에 제안됨.
 -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각 ASEAN + 1 FTA를 하나의 지역 FTA로 통합하는 안으로, 2011년 11월 19회 ASEAN 정상회담에서 지지되었고, 21번째 회담이 열릴 2012년 11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RCEP의 주요 원칙들로는 (1) 현존하는 ASEAN FTAs 보다 우월

할 것; (2) 현 ASEAN FTA 파트너 국가에 우선순위를 주되 개방적이며 포괄적일 것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는 현재 9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1세기형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함. 2012년 중반 시행을 목표로 현재까지 11번의 협상 라운드를 개최하였으며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이 참여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는 앞서 언급한 협약들이 모두 통합되어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로부터의 전략적 및 경제적 이득이 클 것으로 기대됨.(세계 GDP의 60%, 세계 무역의 50% 커버하는 지역이며 광범위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

□ 채욱 원장 (Wook Cha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동아시아의 지역전반을 아우르는 FTA,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및 지역경제통합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 발표함.
- 동아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 FTA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이 큰 점과 동아시아 국가간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역 FTA는 필요함. 더욱이 현존하는 비포괄적인 지역 FTA들은 중복 또는 상충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하나의 통합적인 FTA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필요성은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후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지역 FTA를 형성하는 데는 장애요소 또한 존재함. 동아시아 국가 간 다양성, 민감한 경제부문과 제품의 존재, 정치적 및 행정적 부담, ASEAN 회원국의 추가적인 이득 여부 불명확, 중국·일본·한국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 지역 FTA 간의 경쟁 등을 들 수 있음.
- 가장 이상적인 FTA는 '많은 지역국가를 포함하는 수준 높은 FTA'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는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해볼직 함.
- 이에는 단기에 실현될 수 있는 FTA로 시작하는 첫 번째 옵션과 (중국, 일본, 한국 3개국 FTA 로 시작하여 점차 ASEAN+3, ASEAN+6를 포함) 유럽스타

일의 경제통합 (금융 및 자본시장 통합)을 추구하는 옵션이 있다.

-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은 크게 기능적 경제 통합과 제도적 경제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CJK (China-Japan-Korea) FTA를 통해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됨. 비경쟁 부문을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제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커뮤니티 인식 제고를 통한 국가 간 체계모니 경쟁 억제 및 역내 분쟁 해결이 기대됨. 또한, 글로벌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리라 기대됨.
- 역내 경제통합에 있어 한국의 포지션은 경제통합의 형태 및 방향에 따라 상이할 것임.
-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한국은 단기에 중국 및 일본과의 개별적인 FTA를 확보한 후 점차 ASEAN + 3 및 ASEAN + 6로 확대하고자 할 것임. (ASEAN+6의 경제적 가장 크지만 ASEAN+3의 효과와는 그 차이는 미미하여 ASEAN+6는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 더욱 의미가 있을 것)
-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룬 경제통합 커뮤니티(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뿐 아니라 규제 조화, 지역 경제통합, SME 촉진 및 경쟁력 향상 등을 포괄적으로 다룸)이지만, 한국은 이미 TPP 회원국가 대부분과 FTA를 맺고 있으므로, 단기에 TPP가 한국에 주는 즉각적인 인센티브는 거의 없음.
- 따라서 한국이 TPP에 가입할 지의 여부는 CJK FTA 및 EAFTA의 진행경과, 중국 및 일본의 향후 지역 정책 및 여타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TPP 가입 양상에 달려 있음.

□ 스티븐 웡 선임디렉터 (Steven Wong,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laysia)

- AEC의 실현가능성 및 향후 AEC 실현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발표함.
- AEC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의 형성 여부가 ASEAN 국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03년 칸쿤(Cancun)에서 열린 다자간 협상인 도하 어젠다의 실패는 AEC를 비전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교훈 및 중국의 부상

은 Bali Concord II를 긴급하게 도입해야 이유가 되었음. (동 Concord의 세 기본 부분 중 하나가 AEC임) 2007년 12번째 ASEAN 정상회의에서 AEC의 목표달성 시점을 2015년으로 앞당김.

- AEC의 청사진은 4가지 달성조건을 제시하는데, (단일 시장 및 단일 생산기지, 경쟁적 경제 지역, 균등한 경제 발전,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목표치의 달성 여부는 득점표(scorecard)를 통해 모니터링 되고 있음.
- 2015년까지 AEC를 완성하지 못할 시 ASEAN 및 회원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클 것으로 보임.
- AEC의 scorecard에 의하면 2011년 10월에 집계된 점수는 높은 수준. 다만 단계별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1차적으로 달성되지 않은 조건이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함.
-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각 국의 실행력 부족이므로, ASEAN 회원국가는 AEC 실행을 지지하기 위한 국가적 레벨의 위원회를 설치해야함.
- 결론적으로, AEC의 2015년 완성은 어려울 것이며 2015년 이후에도 AEC는 지속적으로 work-in-progress로 남을 가능성 있음. 따라서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실질적 'community' 확립을 추구해야 함.

[제2세션] Nurturing Asia Pacific Growth in the Aftermath of the Fiscal Crises in Europe: Paradigm Shift and Structural Change Needed

□ 동 세션은 휴 스테폰스(Hugh Stephens) CANCPEC 부의장의 주재 하에, 러시아 대사 레오니드 모시브(Leonid Moiseev)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음. 사회는 멕시코 외교부 디렉터 모니카 오코아 팔로메라(Monica Ochoa Palomera)가 맡아 APEC 국가들이 외채문제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함.

□ 수지로 우라타 교수 (Shujiro Urata, Waseda University)

- 일본의 대 ASEAN 경제협력 현황 및 동기에 대해 발표함.

- 일본은 ASEAN의 세 가지 커뮤니티 중 하나인 ASEAN Economic Community의 확립을 위해 재정 지원, 기술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음.
- 특히 ASEAN의 단일시장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인프라(유형 및 무형)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중임.
-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에는 국가 전략적 원인도 존재하는데, 특히 재정 문제가 뚜렷함. ASEAN 역내 통합 활성화 및 경제성장은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람키센 라잔 교수 (Ramkishen Rajan, George Mason University)

- 선진국가(AEs)와 신흥시장국가(EMEs)의 재정건전성 현주소를 점검하고 유로존의 지속적인 재정위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시아 국가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함.
- 신흥시장 국가들은 공공부채가 35 - 40% 수준으로 안정적인 반면 선진국가들은 정부부채가 10년간 큰폭 상승하여(2000년 60% → 2010년 100%로) 부채안정성에 적신호를 보임.
- 선진국의 급격한 부채 증가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일부 기인하지만 선진국 재정악화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큼.(높은 조세 및 과도한 정부지출, 특히 사회보호 관련 지출)
- 금융시장에서는 유럽, 특히 PIIGS, 의 재정여건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존재하는데, IMF는 “특별한 조정이 없이는 정부가 부채를 지불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재정상태가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정의내림. 또 다른 방법으로, 미래 주요 흑자의 현재가치와 초기 정부부채 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음.(미래 시점에 흑자가 존재하며, 부채발행 속도가 실질이자율 인상속도보다 빠르지 않아야 재정여건이 지속가능함)
- 오퍼레이션 레벨에서는,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봄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판단함.

- 실질이자율이 경제성장보다 높으면 부채 비율은 증가할 것임. 즉 어느 국가가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면, 성장이 실질이자율보다 높아야만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경제성장의 중요성 시사)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정상태 측정방식은 지불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유동성 위기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더욱 우려되는 부분임. 지불능력에 근거하여 재정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부정확할 수 있음.
- 부채 래퍼곡선과 티핑 포인트: 2011년 IMF는 공공부채가 78% 한계점을 넘으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진다고 발견. 선진국가는 60% 이상, 신흥시장 국가 25% 이상일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거나 때로는 역효과가 나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재정여건이 나쁜 국가는 경제성장이 희생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줌과 동시에 구체적인 중기 재정건전화에 시급함.
- 이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조세인상보다는 지출감소임.
- Blanchard와 Cottarelli (2011)는 몇 가지 재정전략 원칙을 제시하였음.
 - ✓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함
 - ✓ 장기적인 부채비율 감소를 목표로 해야 함
 - ✓ 예산 삭감은 구체적인 지출 및 수입 전망에 근거해야 하며, 구조적인 개혁이 동반되어야 함.
 - ✓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수단과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함
 - ✓ 예산 삭감 시 형평성이 있어야만 지속가능함
- 기존의 북유럽 사회보장방식은 비용 비효율적이며, 이렇게 세수 증가로 충당되는 사회보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그러므로 최근에는 북유럽에서도 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임.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각국은 통화가치 하락 및 경제 침체를 경험하였으나 지역 리더십 부재로 돌파구 마련이 어려웠음.
- 1999년 유로화 이후 유로존 국가들의 이자율은 이상적인 독일 이자율 수준으로 수렴하기 시작하였고 유럽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또한 유로가 미국 달러와 경쟁할 국제통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았음.

- 그러나 유로존 위기는 이러한 긍정적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고, 아직 아시아의 통화통합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임.

[제3세션] Securing Future Growth through Functional Cooperation

□ 이안 부처넌 (Ian Buchanan) AUSPECC 의장의 주재 및 데니스 맥나마라 (Denis McNamara) NZPECC 의장의 사회 아래, Duke-NUS Graduate Medical School의 총장 란가 크리슈넌 (Ranga Krishnan)의 기조연설로 시작됨.

□ 데이비드 홍 회장 (David Hong,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비상식량의 수요, 예비식량을 필요성, 비상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 발표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자연재해에 아프리카나 북유럽 및 미국에 비해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응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예비식량은 비상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한 보험과 같음.
- 심각한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위기 도래 시 구호식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기에 예비식량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비상식량 제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예로 G20 Pilot project for an emergency humanitarian food reserves 및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PTERR) 있음.
- APEC은 비상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APEC이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다양한 식량 확보 가능함.
- 식량안보는 올해 APEC의 priorities 중 하나이며 AFERM을 통해 목표달성 가능할 것임.

□ 틸락 도시 수석연구원 (Tilak K Doshi,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Energy Security의 패러다임 변화 및 향후 Energy Security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Energy Security는 이에 대한 무수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정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명확하게 정의내릴 필요가 있음.
-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의들은 공통점은, 대부분 에너지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에너지의 비용(price)과 관련한 것임.
- 에너지를 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료수입 측면, 에너지 지출 측면, 에너지 사용 측면, 가격변동성 측면, 환경 측면, R&D 측면 등을 들 수 있고, 따라서 하나의 측면만 가지고 정의내리는 것은 임시적이며 매우 자의적일 수 있음.
- 에너지 사용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와 중동의 에너지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풍력,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가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그 활용이 미흡하며, 여전히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가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당분간 그러할 것임.
- 결과적으로 중동-아시아 간 석유흐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셰일가스(Shale Gas)의 증가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에너지는 그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 추세에 있어 과거 비관적으로 예상된 것처럼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각국이 우려할 부분은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의 인상.
- 특정지역의 에너지 공급 감소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의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에너지 안보정책으로 흔히 제안되는 수입국가 다양화 및 사용연료 다각화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임.
- 결론적으로 발표자는 에너지 관련 정책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봄.

□ 나롱차이 아크라사니 회장 (Narongchai Akrasanee, TNCPEC)

- ASEAN 역내 국가들의 케이스를 통해 인프라 구축과 아시아태평양 역내 연

결성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함.

-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최저생활 수준에서 벗어나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향후 성장은 안정적이고, 문화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질적 성장이어야 함을 강조
- 성장이 무역 및 투자 등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고, ASEAN 역내 무역 또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역내·외 무역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결수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미흡한 인프라 시설에도 불구하고 ASEAN 국가들의 무역은 증가했으나, 충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ADB는 ASEAN 국가들과 중국의 연결성을 높이는 대대적인 사업을 후원하고 있음. (East-West Corridor, North-South Corridor, South-South Corridor 등) 그 중 일부는 현재 운용중임.
- 더욱이 미얀마가 통상개방을 함으로써, 이러한 연결성이 더욱 현실성 높아짐.
- 이렇듯 유형 기반시설은 일정 기간 내에 구축될 것이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는 기약이 없다는 점임.
- 아시아는 특히 냉전기 상이한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열 등 부정적인 국제관계 사에 기인한 장애요소가 존재함.
- 따라서 ASEAN 회원국들은 국가 간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제4세션] Nurturing Asia Pacific Growth: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nd Productivity Drive for APEC Economies

- ☐ 맨프레드 윌헬미 (Manfred Wilhelmy) CHILPEC 의장의 주재 아래, 마이클 엔라이트 (Michael Enright) 홍콩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됨. 사회는 MONPECC의 담바다르자 자갈사이칸 (Dambadarjaa Jargalsaikhan) 사무국장이 맡음.
- ☐ 탄 키 지압 부교수 및 탄 콩 얀 교수 (Tan Khee Giap & Tan Kong Ya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싱가포르는 2011년 per capita GDP 세계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함. (홍콩 8위, 일본 25위, 한국 26위)
- GDP 성장률, 실업률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또한 양호한 수준임.
- 홍콩과 비교한 실질경제성장률은 더욱 빠른 속도를 보임.
- 그러나 미국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는 한계를 드러냄.
- 2009년 경제 전략 위원회 (ESC)는, 성장기회 포착, 중소기업 부문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다국적 기업 유치, 지식자본 확충, 싱가포르를 선두 글로벌 시화, 포괄적 성장 촉진,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 희소자원인 토지의 사용가치 최대화 등을 제안함.
- 내외부 충격 발생 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회복력을 키웠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전반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켰으나 소득 불균형은 악화되었음.
- 싱가포르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89였으며 그 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심각한 불균등은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PC(Wages-Productivity-Competitiveness) Nexus를 통한 임금개혁이 제안됨.
- WPC Nexus는 우선 임금상승 → 기술 및 생산성 향상 → 결과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함.
- 많은 유럽경제들처럼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의 조합은 경쟁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낮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의 조합은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므로, WPC Nexus를 통한 높은 임금과 높은 생산성 조합으로의 움직임은 바람직함.
- 임금상승은 단기에 가능하나 생산성 향상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갭을 메워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 소득불균형 및 노동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원칙을 제시함.
 - ✓ 외국인 노동인구 합리화
 - ✓ 현대기술 향상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스킬매칭, 스킬 업그레이딩 등 교육 및 투자
 - ✓ 정부정책의 근본적 변화

- ✓ 퍼포먼스 지수 재정의, 정책 메커니즘 및 정부기관 간 금융자본 분배 향상
- ✓ 무역 및 금융세계화 공고화

-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성장은 결과적으로 포괄성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일으킴.

□ 존 아빌라 통상정책 책임자 (John Avila, USAID Philippines)

- 자유 시장 방식의 주요 특성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정부규제가 경쟁을 억제한 필리핀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 정부규제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함.
- 시장실패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
- 필리핀의 항공서비스는 국영항공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제2의 항로 없이 마닐라에 의존하고 있음.
- 항공서비스 자유화에 따라 다양한 항로 개방 및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고려 등 항공서비스의 질적 양적 변화
- 필리핀은 싱가포르, 태국 등 타 ASEAN 국가에 비해 항공 사업에 진입장벽이 높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운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제한적임. 섬 간 운송의 98%를 차지하는 해운의 경우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높은 비용이 초래됨.
-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농림부, 필리핀 개발은행, 국가경제개발청, 민간 부문 등이 연합적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필리핀의 경우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정부개입 및 규제는 시장실패를 보완하지 못함. 따라서 정부규제는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며 이때 규칙은 투명하며 일관적이어야 함. 또한 규제당국은 역량 및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 스튜어트 레키 회장 및 리타 시아오 컨설턴트 (Stuart Leckie & Rita Xiao, Stirling Finance Limited)

- 중국의 사업자금 조달 및 자본시장의 현주소 및 판도를 소개하고 향후 요구되는 자본시장 개혁에 대해 발표함.
-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심하며, 채권시장은 아직 시장기구의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할 만큼 유동성이 높지 않음.
- 중국 내 각 자금조달 채널의 특성
 - ✓ 은행 대출: 공기업 및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 중국 내 금융 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함
 - ✓ IPO: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
 - ✓ 채권 시장: 대부분 대기업에 의해 지배됨
 - ✓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매우 장기적인 투자의 경우가 대부분임
 - ✓ 개인 대출: Wenzhou의 CEO 도주사건 등으로 그림자 금융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는 거래의 80% 이상이 투기활동 하는 소매투자자이지만, 점차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간의 상호작용도 증가추세임.
- 투자자금 운용회사는 1998년 처음 시작되어 2007년까지 급격히 성장하다 최근 5년간 줄어듦.
- 보험회사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엄격한 규제로 인해 개방성이 낮음.
- 연금기금은 지난 20여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음. 연금기금의 주요 투자 영역으로는 예금, 국채 등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수익률 2%로 낮은 수준이었음.
- 국부펀드: 중국은 세계 Top10 국부펀드 중 4개 보유. (NSSF, CIC, SAFE 등)
- 신탁회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고, 자금조달 및 투자에 있어 가장 융통성 있는 형태임.
- 사모펀드는 보통 5-8년의 장기투자자로 이루어지는데, 2011년까지는 규제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향후 NDRC(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에 의해 규제될 것임.
- 중국 자본시장에 전반적으로 현존하는 문제는 (1) 투기적 거래 및 높은 변동

- 성; (2) 낮은 배당금 지급; (3) 투명성 결여; (4)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개혁이 필요함. (1) 기관 투자자 투자 촉진; (2) 투기활동 억제 및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3) 정보공시 및 시장 부정행위 조사기능 강화; (4)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등이 있음.

[제5세션] The Future Role and Continued Relevance of PECC

□ 스테픈 청 (Stephen Cheung) HKCPEC 회장(Hong Kong Baptist University 경영대학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마지막 제 5세션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 및 협력 구조에서 PECC의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함.

□ 무하마드 누어 전무 (Muhamad Noor, APEC 사무국)

-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통합에 있어 APEC의 역할에 대해 발표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ASEAN FTA, ASEAN+3, ASEAN+6, AEC, TPP, EAS (East Asia Summit), G20 등 현재 시행중인 (또는 논의되고 있는) 지역 협정이 무수히 상존함.
- APEC 역내 FTA 및 RTA 49개이며 그 중 44개가 시행중임.
- APEC은 1994년 보고르 선언을 통해 세 가지 결의를 발표하였는데, (1) 다자간 무역 시스템 강화; (2) 아시아-태평양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활성화; (3) 아시아-태평양 개발협력 강화임.
- 선진공업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목표 달성기로 합의함.
- APEC의 성장전략은 5개 특성을 지향함.
 - ✓ 균형성장
 - ✓ 포괄적 성장
 - ✓ 지속가능한 성장
 - ✓ 혁신적 성장
 - ✓ 안보가 보장되는 성장
- 경제협력 및 기술지원협력(ECOTECH)을 통해 APEC 지역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옴. 1993년 이후 프로젝트 1600건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150건 이상 진행 중임.

- APEC 내 최혜국대우 관세는 1989년 평균 16.9%에서 2010년 평균 5.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지역 내 무역거래 비용 또한 꾸준히 감소하였음.
-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APEC 회원국이 역내 국가들과의 무역량을 증가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FTA의 효과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남.
-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은 ASEAN+3, ASEAN+6 및 TPP를 기반으로 하는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는 형태로서, APEC은 이를 위한 육성기관의 역할을 함.
- APEC은 2012년 우선적으로 다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1)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지역경제협력 확대; (2) 식량안보 강화; (3)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체인 형성; (4) 혁신적 성장 지원

□ 탄 시 성 부회장 (Tan See Seng,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PECC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에 기여한 업적 및 현재 유용성에 대해 논의하고, 21세기 PECC의 유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언을 발표함.
- PEC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의 본보기 역할을 하였음.(환태평양 지역주의에 대해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APEC의 설립 모델이 됨. Peer Review의 장이 됨)
- 개방된 지역주의의 원조격임.
- 주요한 과거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PECC가 향후에도 유용할 지는 현존하는 다양한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도울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음.
- PECC는 그 규모가 너무 커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따라서 정책결정자에게 무의미한 회의가 될 수 있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지역 금융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은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계기였음.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21세기 유의미한 위원회로 남기 위해서는 (1) 리서치 역량 및 지지력 향상; (2) APEC과 즉각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 이외에도

- 적극적 활동; (3)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구조조정 및 간소화 등을 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G20에 적극적 참여; (2) G20와 Non-G20 국가 사이에서 적절한 중간자 역할; (3) ASEAN+3 및 TPP에 모두 적극적 참여 등을 하여야 함.

2. PECC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Meeting)

☐ 의제 1: 환영 (Welcome and Apologies)

- o 유스프 와난디(Jusuf Wanadi) PECC 공동 의장을 제외한 19개 회원국 및 1개 기관회원 대표 참석(찰스 모리슨 공동의장 불참)
- o 신임 회장(HKCPEC 회장 Prof. Stephen Cheung, NZPECC 회장 Mr. Denis McNamara, MONPECC 회장 Mr. Khalzkhuu)환영
- o 상임위원회 멤버들 중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 사전에 대리인 위임서를 서명하여 제출함.

☐ 의제 2: 의제 채택 (Adoption of Agenda)

- o 원안대로 의제가 채택됨

☐ 의제 3: 상임위원회 Retreat 정리(Summary of the Retreat)

- o 금번 상임위원회 직전에 진행된 회의(Retreat)에서는 각 회원국의 회장들은 PECC와 APEC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PECC가 나아갈 길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개진함.

☐ 의제 4: 지난 상임위원회 회의록(Minutes from the Standing Committee)

- o 2011년 9월 28일과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던 PECC 상임위원회 회의록이 원안대로 승인됨. 회의록의 초안은 2011년 12월 13일 배포되었고, 수

정된 회의록은 2012년 1월 10일 멤버들에게 배포되었음.

- o 상임위원회 멤버들은 회의록을 검토하고 승인함.

□ 의제 5: PECC 재무 보고 (PECC Finances)

- o Jeffrey Koo를 대신해 의장을 맡은 Tan Khee Giap SINCPEC 의장이 PECC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및 Trust Protective Committee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받음.

o PECC Fund Limited 현황 보고

- 2011년 PECC Fund는 수입 US\$644,402 지출 US\$649,552로 US\$5,150의 deficit 이 발생함이 보고됨.
- 2011년 PECC Fund 재무제표는 자산 US\$2,084,625, 부채 US\$374,277, 자본 US\$1,710,348임이 보고됨.
- 2011년도 및 2012년도 현재까지 회원국별 PECC Fund 분담금 납부 내역이 보고됨.
- 2012년도 2월 29일자 PECC Fund는 재무제표 상으로 자산 US\$2,472,865, 부채 US\$341,935이며 자본은 US\$2,130,930임이 보고됨.
- 2013년도 예산(안)이 보고되고, 2012년과의 차이점을 보고함.

□ 의제 6: PECC Fund Ltd 이사들의 총회 (PECC Fund Ltd. Annual General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 o PECC 상임위원회는 PECC FUND LIMITED의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함.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사들은 검토하고 승인함.
- 2011년 12월 31일자 마감된 결산내용
- 사퇴하거나 새로 임명된 이사회 멤버를 확인함

- 회장의 임기를 언급하고, 회계 감사관의 재임명을 보고함.
- 총회의 공지를 승인함.

o 이사회 멤버 혹은 대리인들은 그 현장에서 Attendees Sheet에 모두 서명함.

□ 의제 7: PECC 프로젝트 논의(PECC Work Program)

o 지난 4월 13일 간판프로젝트와 국제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서를 요청하였음.

o PECC는 세 가지 형태의 프로젝트가 있음.

- Signature Projects: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Central Fund 지원이 가능한 프로젝트
- International Projects: 협동적으로 진행되나, Central Fund를 받지 않는 프로젝트
- Member Committee Projects: PECC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지되, 각 국내여론에 초점을 맞추어 행하는 프로젝트

o 상임위원회 멤버들은 새롭게 제안된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하고 간판 프로젝트에 동의하며 추후에 진행할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관심 분야에 관해 토의함.

1) Social Resilience Project

- o 2009년 말에 JANCPEC이 제안하여 국제 프로젝트로 채택되어 진행되고 있음.
- o 2011년 7월에 국제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작년 9월 워싱턴에서의 20번째 총회 때는 2011년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음. 2011년도 최종보고서는 2012년 3월에 출판되었음.
- o 2010년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5가지 성장전략(균형잡힌,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안전한 성장)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는 미래의 그러한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2013년에도 지속

할 것임.

2) PEO Monetary Regimes in the Pacific Region

- o 지난 3월 전문가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지역별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검토하였음. 다양한 금융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더욱 탄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관해 얘기하였음.
- o 새롭게 발전된 금융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앞으로 거시경제정책 목표와 그것의 전달 경로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려고 함. 그리하여 9월에 있을 다음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의 연계성과 국내 금융심화 등과 같은 것들에 관해 주로 토의할 예정임.

3) PFSO: Moving beyond Market Volatility to Foster Food Security

- o 2011년 12월 1-2일에 CTPECC와 공동으로 대만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음. 약 5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관련 정책이 식품안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지에 관해 논의하였음. 또한 가격 불안정에 근본적으로 내재된 원인에 대해 파헤쳐 보고 미래의 소비자, 생산자 및 음식 공급 체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농식품 시스템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해 토의함. 추가 상세 내용은 PECC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음.

4) State of the Region(SOTR)

- o SOTR은 2006년부터 간판 프로젝트로 채택되어 진행되고 있음.
- o 캐나다의 유엔 파우(Yuen Pau Woo)가 책임자로 활동해 왔고, 2011년 1월 집행위원회 컨퍼런스 콜에서 PECC 국제사무국장인 Eduardo Pedrosa가 그 역할을 이어 받기로 함.
- o 2010년에 편집위원 멤버가 확대되었음. KOPEC 역시 편집위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2012년도 SOTR에는 예년과 같이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시경제에 관한 검토
 - SOTR 서베이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
 - 지역경제통합 지표의 업데이트
- 지난해에 언급되었던 제안이 반복되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PECC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함. 또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어젠다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을 SOTR이 해야 함을 강조함.
- 지난해의 보고서는 석유산업과 태평양권 석유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에 초점을 두었고, 올 해에는 유로존의 위기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진행 할 듯 함. 현재로서는 올 6월에 설문지를 배포할 예정임.

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view and Outlook

- CTPECC가 제안한 국제프로젝트로서 아태지역과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TPP와 ASEAN plus X를 비교 대조하려고 함. 또한 지역경제통합의 현재와 미래의 기회와 어려움에 관해 연구할 목적임.
- 이 프로젝트의 세미나는 2012년 10월 3-4일 개최 예정이며 2012년 12월에 프로젝트를 완료시킬 예정임. 결과물은 세미나 후 2달 이내에 발행될 것임.
- CTPECC는 연구에 도움을 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6) 기타

- 이 외에도 'Food Security: A Multi-Faceted Challenge' 라는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음. 미국의 월터 회장(Walter J.Armbruster, Farm Foundation)의 주도하에 진행될 예정이며 2012년 5월에 시작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획 중이라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음.
-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해양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인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의 내용이 업데이트됨. FPTPEC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최근 3월 26-28일 하와이에서 제2차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 o 2011년 상임위원회에서 간판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된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the Extractive Industry'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이 보고되었음. 2012년 5월 중 발행될 보고서 초안이 나올 것이며 다음 단계 진행에 관한 제안서가 그 후에 나올 예정임.

7) 관련 논의사항

- o PECC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예산 지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각의 성격에 맞는 예산 지출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논의함. 이에 대해 멤버들은 동의하였으며,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기로 함.
- o 또한 각기 다른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에 서로 다른 성격의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템플릿이 있다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의제 8: 회원국 활동 보고 (Member Committee Action Plans)

- o 각 국 위원회는 위원회별 Action Plan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활동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통해 각 국가별 계획중인 다양한 활동에 대해 소개함. 유스프 와난디(Yusuf Wanandi) PECC 공동의장은 현재 배포된 자료집에 삽입된 내용들보다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알릴 회원국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신의 내용들을 차후에 다시 공유하자고 함. 또한 향후 위원회별 정보 교류 및 협력에 더 힘쓰기로 함.

□ 의제 9: 국제사무국 활동 보고 (Report from the Secretariat)

- o PECC 국제사무국장(Eduardo Pedrosa)이 사무국 활동 내역을 보고함.
 - PECC 사무국의 홍보활동 및 발간물들을 소개함.

- PECC의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원 활동을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와 회원국들의 활동을 지원함.
- 국제사무국으로서 재정적인 부분과 전반적인 행정을 맡아 담당함.
- 2011년 상임위원회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국제사무국의 전체 활동을 보고함.

☐ 의제 10: PECC의 새 공동의장 선출 (Candidates for PECC Co-Chair)

- o PECC 현 공동의장 중 찰스모리슨 회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므로 이에 따라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게 됨.
- o 지난 1월 10일 집행위원회 컨퍼런스 콜에서 캐나다 CANCPEC 회장인 캠프벨 (Amb. Donald Campbell) 대사가 추천을 받았고,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신입 회장으로 선출됨.

☐ 의제 11: 향후 회의 (Venue and Dates for Future Meeting)

- o 2005년 이후로, PECC 총회는 일 년에 한번 개최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도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음.
- o 2013년 6월 경 캐나다 벤쿠버에서 상임위원회와 총회를 같이 개최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또한 APEC회의 일정에 맞추어 2013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논의 함.

☐ 의제 12: 기타 (Any Other Business)

- o PECC 공동의장은 멤버들에게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함.